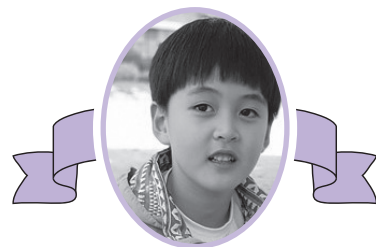


동상





내가 꿈꾸는 마을



권지환 | 제천 홍광초등학교 2학년

이번 여름에는 49일, 제일 긴 장마라 비 피해가 컸다. 내가 살고 있는 제천 근처에도 비 피해가 엄청 컸다. 그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삼탄역이 잠긴 것이다. 아빠가 청주에 계셔서 기차를 타고 아빠를 만나러 가야하는데 갈 수가 없었다. 나는 아파트 11층에 살고 있다. 비 피해를 당하지 않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사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뉴스를 보고 갑자기 아파트도 겁이 났다. 건물도 아파트도 불안하면 앞으로 나는 어떤 집에서 살아야할까? 나는 깃발을 너무 좋아한다. 여러 개의 태극기, 새마을기, 경찰청기, UN기를 모두 달 수 있는 9층짜리 내 건물을 짓고 싶었다. 이번 코로나19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지켜야 하고 깃발을 달고 살려면 주택이 필요할 것 같다.

처음 우리가 아파트로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아파트 주위에 아무 것도 없어서 여유로운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건물이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해서 너무 복잡한 마을이 되었다. 길에 주차도 많이 되어있어서 아빠가 주말에 집에 들어오실 때면 가끔 짜증을 내시기도 한다. 왜 발전한 곳만 계속 발전을 하고 조용한 곳은 계속 조용하기만 할까? 나는 그것이 정말 궁금하다. 엄마가 말씀해 주셨다. 한국은 땅이 좁아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봉화 할머니 댁에 가다 보면 넓은 땅도 엄청 많은데 왜 복잡한 곳만 복잡한 걸까? 나는 복잡하지 않고 한가한 곳에 작고 예쁜 집을 띄엄띄엄 지어서 코로나19도 겁내지 않고, 층간소음에도 힘들어 하지 않는 그런 집과 예쁜 마을을 만들고 싶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산책도 못하시고 복지관에도 못가시고 늘 집에 계신다. 내 친구들도 놀이터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좁은 우리나라 땅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려면 집의 크기는 너무 크지 않고 작고 아담하며 마당이 있어서 코로나19처럼 위험한 바이러스가 다시 생겨도 안전한 내 마당에서 산책을 할 수 있는 집을 짓고 싶다. 주위에 있는 넓고 허름한 집을 튼튼하게 고쳐서 예쁜 집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은 떨어져서 살게 되어 지금보다는 덜 복잡할 것 같다. 아담하고 예쁜 집이 사회적 거리를 지키며 자리 잡고, 서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여유가 있는 예쁜 마을로 만들고 싶다.